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 투쟁승리!

# 투쟁속보

총파업8일차

2021년 9월 9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 노사 대표 교섭 최종 결렬 이 파국의 책임은 의료원에 있다!

오후 5시부터 노사 대표 교섭 진행,

직원들의 바람은 또 다시 무너졌다.

노사 대표의 입장차이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던 대표교섭이 8일 오후 5시 재개되며 밤까지 지속됐으나 결과는 그대로였다. 또 한 번 직원들이 바랐던 직원이 최고의 자산인 고대의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 사립대 중 우리지부와 함께 파업을 이어오던 한양대가 지난 8일 타결했다. 총액2.2% 인상, 인력충원 46명(비정규직 충원 20명) 및 리프레시휴가 5, 10년에 1개 월 나이 트근무 월 6일 이내 제한, 임신 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 등 직원들을 위한 단체협약 내용도 상당수 합의했다.

적자에 허덕인다는 한양대라도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경영마인드를 가졌다.

정말 고대만 남았다. 왜! 고대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고대로인가!

의료원은 8,500 직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직원들이 의료원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네네하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인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수익을 경신해대면서도 건물을 지어야 하니 자꾸 양보해 달라는 것도, 10년 전 똑같은 레퍼토리일 뿐이다.

노사관계 파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 믿고 찾아준다는 브랜드 이미지, 네임 밸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의료원은 단순히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싫다는 짧은 선택을 하려다가 더 큰 것을 잃는 잘못을 피해야 할 것이다.

노사 파업이라는 최악의 선택이 장기화될수록 고대병원의 이름을 믿고 찾아준 환자 보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네임 밸류에 상처를 입고 외면받는 병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의료원이 노사 상생은커녕 직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들의 손으로 진정 ‘의료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하는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의료원이 발전하고 커지는 만큼 직원들도 같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의료원이 기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직원들이 의료원 발전의 동력이고 자산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의료원에 그것을 증명하는 투쟁을 완강히 펼쳐가겠다. 오늘 고대의료원 노동 현실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원을 신랄하게 밝히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도 파업으로 인해 다양한 컴플레인이 쏟아지고 있으며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빠져있는 성장동력, 즉 직원들이 없기에 나타나는 당면한 현실이다. 의료원은 지금이라도 절절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타결안을 제시하여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결단임을 즉시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위한 타결안을 제시 해야 한다.

# 2021 고대의료원지부 현장노동실태 증언대회

오늘오전 11 : 00

인암병원 로비로 집결!

